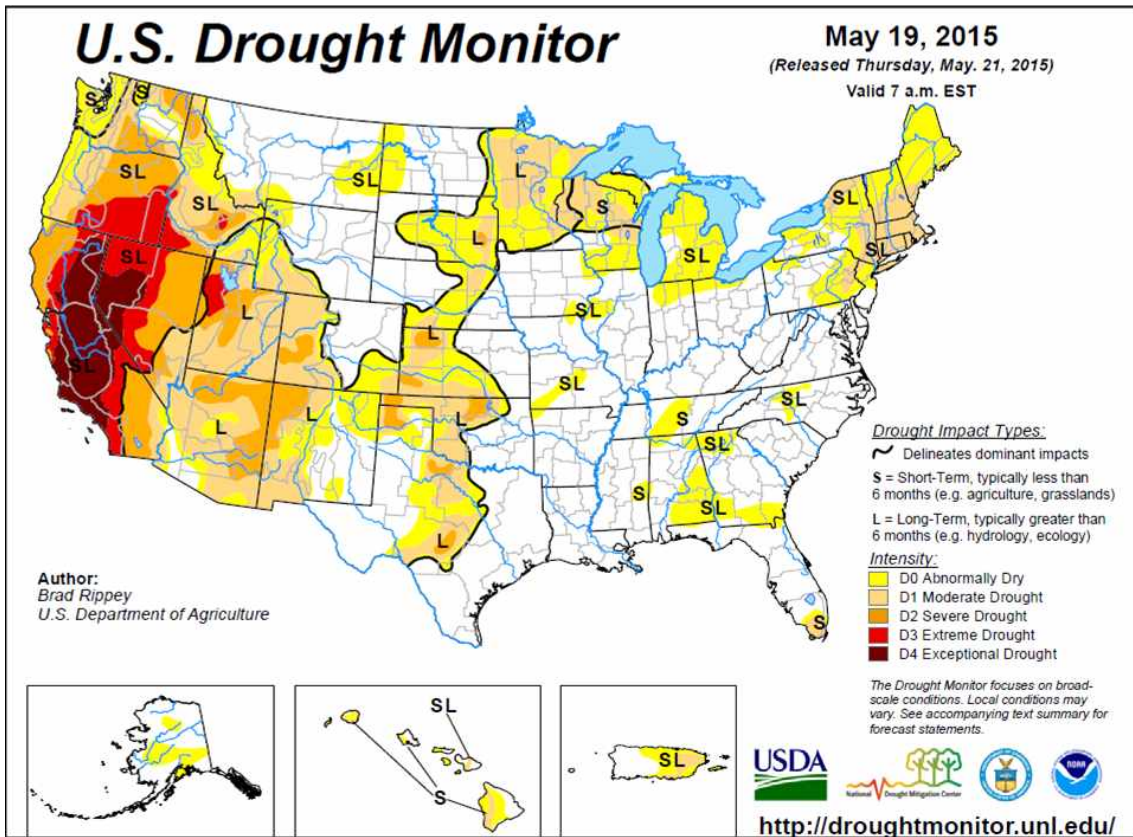


5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1)

□ 미국 기후 현황(5/17~5/23)



이례적인 기상 활동으로 중부와 남부 평원 일대에는 강한 강우가 쏟아졌다. 오클라호마에 내린 최근의 강우는 1941년 10월 기록했던 최대강우량을 갱신할 정도였다. 소나기성 강우는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와 중서부의 북부지역, 북부 산간의 서쪽 지역에 집중되었다. 옥수수 재배지역 전역에서는 한 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두와 늦가을 옥수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부지역 또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는 여름작물과 목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레곤, 네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을 포함하는 극서부에서는 작물 생육에 적절한 수준의 강우가 내렸다. 하지만, 서부 지역의 강우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남동부와 북서부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 한 주간 중부 평원지대의 평균 기온은 10°F 보다는 높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지역과 중서부 북부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북부 지역에서는 5월 18일부터 20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5/18~5/24)

남동부와 태평양 북서부지역을 제외하고 미전역에서는 지난 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중부 대 곡창지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는 낮았지만 10°F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로키산맥과 북부 곡창지대, 오대호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을 유지했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는 강우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밖에 대부분의 북부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년 수준인 1.5 인치의 비가 내렸다.

■ 옥수수

5월 24일까지, 총 재배지의 92%가 파종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는 6%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4%p 앞선 상황이다. 동부 옥수수 지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미시간과 인디애나에서는 각각 16%p, 14%p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미국 전역을 살펴보면, 이번 주말까지 총 파종된 옥수수의 74%가 발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작년보다는 18%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2%p 앞선 것이다. 북부 다코다 지역과 위스콘신에서는 지난 한 주간 28%p가 추가로 발아하였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다.

■ 가을밀

이번 주 말 출수율은 77%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9%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0%p 앞선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습한 날씨로 인해 가을밀 수확이 지연되었는데, 이주 말까지 4%가 수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전 5년 평균보다 8%p 뒤쳐진 수준이다. 가을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5%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15%p 높은 수준이다. 대평원지역 전역에 적정량의 강우가 내려 가을밀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면화

지난 주 남동부지역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파종 작업도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5월 24일까지 총 재배지의 45%에 해당하는 지역에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13%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4%p 뒤쳐진 상황이다. 텍사스에서는 강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주말까지 29%가 파종되었고 이는 직전 5년 평균보다는 21%p 뒤쳐진 것이다

■ 쌀

5월 24일까지 한 해 생산량의 93%에 해당하는 쌀이 파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며, 직전 5년 평균보다는 약간 앞선 상황이다. 출수율은 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보다는 4%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5%p 앞선 것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건조한 날에는 제초제와 비료를 살포하였다. 응답자의 66%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작년 동기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5/17~5/23)

■ 유럽: 남부와 동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고, 북부지역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남부지역, 발칸반도 북부지역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태풍의 영향으로 25~100mm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겨울작물의 개화와 최근 파종한 해바라기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북서부 등에서는 대부분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어 겨울밀 개화를 촉진시켰으며, 영국에서는 간간히 소나기가 흩뿌리기도 했다(3-30mm).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발칸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여름작물의 생장이 촉진되었고, 스페인에서는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구소련(서부): 최근 내린 강우에 이은 화창한 날씨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었으며, 이 덕분에 여름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주 내린 비로 가뭄이 해소되었으며, 뒤이은 맑고 건조한 날씨(평년보다 4°C 높은 수준) 덕분에 겨울밀의 성장과 옥수수, 해바라기 발아를 촉진시켰다. 러시아 중부와 남부 지역 또한 겨울 작물 성장에 적합한 날씨가 유지되었으나, 러시아 남부지역(Krasnodar Oblast)에서는 일시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계절적인 강우 및 소나기의 영향으로 남부의 겨울밀 생산지역에서는 겨울밀 생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Moldova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와 봄 작물 파종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러시아 북부지역과 Belarus에서도 봄과 여름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려 봄철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지난 한 주간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지역에 따라서는 300mm이상), 벼 재배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일부 벼 재배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생육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Yangtze 계곡의 서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25-50mm), 이로 인해 여름작물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고, 계곡의 중부, 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강우량이 10mm 미만) 겨울 작물 수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중국 북부 고원의 건조한 대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북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10-25mm) 대두와 옥수수 성장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한국 전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일본에서는 전역에 걸쳐 내린 비로(25-50mm), 벼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동아시아 전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호주: 주 초반 호주 밀 재배지 전역에 걸쳐 비가 내렸고(25mm), 최근 파종한 밀과 보리, 카놀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주 후반에는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작물의 발아와 면화, 수수 수확 작업이 원활이 이루어졌다. 호주에서는 엘 니뇨(El Niño)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겨울작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평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수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평년보다 1°C 전후).

■ 아르헨티나: 지난 몇 주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가 끝나고, Buenos Aires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여름작물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겨울 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분을 상당량 공급해주는 역할도 했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강우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옥수수과 대두 수확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북서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이덕분에 겨울작물 파종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북동부 옥수수 재배지역(Santa fe부터 Formosa)에서는 최근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25-100mm), 지난주 보다는 적은 양이었으며,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흩뿌리기도 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4~8°C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낮 최고기온은 20~30°C 수준이었으며, 밤에도 0°C 이상을 유지), 여름작물의 생육이 부진했지만, 새로 파종한 겨울작물의 발아가 촉진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수확률은 45%, 콩의 수확률은 8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월 21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작물의 수확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Goias 남부 지역과 Mato Grosso 남동부지역, Mato Grosso do Sul 북동부지역 등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으며(10-50mm),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낮 최고기온은 30°C이상) 옥수수와 면화 성장을 촉진시켰다. 브라질 남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남부 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은 수준을 유지) 겨울밀 파종과 출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했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5월 18일까지 51%가 파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며, 이모작 작물인 콩의 경우 대부분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내려(10-100mm)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